

포클로어와 매스미디어

독일의 타블로이드지를 중심으로

훗코 하카루

번역: 박승현

들어가며

—미디어에 범람하는 포클로어적인 것

인쇄는 물론이고 전파·전자 미디어가 발전하는 가운데, 포클로어적인 텍스트가 범람하고 있다. 독자나 시청자가 참가하는 기획, 특히 투서, 투고란, 또는 외신이 전하는 소식 등은 매스미디어라는 루트가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포클로어로 간주하는 것에 그다지 저항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경우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미디어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옛날 이야기나 전설, 신화의 원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러한 포클로어적인 것을 민속학의 대상으로서 정면으로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민속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 대상이 결코 종래의 포클로어·민속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부터 민속학이 다루어온 포클로어·민속은 특히 구전문예를 대상으로 본다면 전(前) 산업사회, 농촌사회에서의 신체언어나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도 포함한 구두에 의한, 즉 면 대 면의 직접적인 전승 과정의 산물이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포클로어는 세대 간에 전승되어가는 것, 즉 전승성이라는 것이 그 본질에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 때문에 현재, 설화 연구자가 빈번히 다루게 된 <현대전설(modern Sage)>, <도시 전설(Urban Legend Großstadtmytos)>과 같은 것도 예전에는 <소문>의 한 범주로서 민속학의 대상으로서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¹ 이들 <현대전설> 등은 민속학이 필드를 농촌에서 도시로 확장해가는 가운데 그 시야에 들어온 것이지만, 현대 포클로어와 매스미디어의 관계, 또한 매스미디어 자체에 대한 민속학적 어프로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매스미디어, 특히 신문을 중심으로 한 매스미디어와 현대의 포클로어의 관계, 또한 그 연구의 개요를 제시하고 싶다.

1. 타블로이드적 세계와 포클로어

『빌트(Bild)』는 독일 전체에서 약 450만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대중적 전국지이다. 주요 4지로 이야기되는 전국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취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디 벨트(Die Welt)』,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의 발행부수가 대략 수십만 부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빌트』는 현대 독일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활자 미디어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²

이 신문은 거의 택배가 아니라, 길거리의 스탠드나 소형매점 등에서 팔리고, 열차, 카페, 술집 등에서 잘 읽히는 듯하다.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의 공장노동자의 독서 관습을 조사한 보고에서는 통근 도중 매점에서 이 신문을 사서, 일하는 중간 중간의 쉬는 시간에 읽다가, 가족을 위해 집에 가지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일반적이라고 한다.³

체재를 보면, 사진 등은 4색 인쇄의 타블로이드지. 정치, 경제기사 외에 스포츠 정보, 누드 사진이나 유명인의 스캔들과 같은 센세이셔널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⁴ 기사 전체가 선정적인 정조로 애매한 뉘앙스가 자주 나타나며, 날조한 비난기사도 종종 실는다고 한다. 문체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문체이고,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대중오락지 성격이 강하다. 그 점에서는 일본의 타블로이드지, 스포츠신문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신문이 민속학의 대상으로서 흥미를 끄는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점, 즉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기사내용, 지면 구성의 양상이 민속학자가 이제까지 <전설(특히 현대전설 등)>, <일상의 담화(Alltägliches Erzählen)>, 혹은 <세간 이야기>로 불려온 일군의 포클로어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닮았다는 것이다. 우선 실제로 『빌트』지의 지면을 살펴보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993년 9월 9일 발행된 것이다.

1면의 지면은 큰 제목 중심의, 목차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일 큰 제목에 사진이 들어가고, 본문 요약기사가 실려 있으며, 관련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이어진다.

그 큰 제목들을 열거하면, 가장 상단에는 「대신 부인, 10,000마르크의 보석을 도난당하다」(부인의 얼굴 사진 첨부, 독일의 법무상 부인이 세탁물 속에 보석을 넣은 채 잊어버려 도난당하다), 「의원 보수 35,000마르크 증액」(의원의 보수가 증액된 것에 대한 비판), 다음으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ZDF의 스타, 브리짓 바스투젠이 나의 결혼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한 여성의 호소」(FDP의 정치가이자 남편을 텔레비전 사회자인 여성에게 빼앗겼다는 한 여성의 고발), 나아가 작은 칼럼 기사의 단신란에는 가솔린 가격 상승, 커피의 건강상 효용, 유방암 치료의 개선 등의 기사가 열거된다.

가장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사는 대개 정치가, 스포츠선수, 예능인 등 유명인의 스캔들 기사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들 기사와 나란히 신문명 로고 밑에 커다란 공간을 할애하고 2점의 칼라 사진이 들어간 UFO 관련기사이다. 제목은 「UFO 촬영, 올 여름의 새로운 즐거움」.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푸딩 볼을 올려놓은 것처럼 하늘을 나는 원반형 물체를 타고 우주인은 찾아오는 것일까? 초록빛의 작은 존재는 실제로는 파란 빛인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어쨌든 이 여름의 즐거움이 이 UFO 사진이다.” 그 후 기사에는 UFO와 그 우주인처럼 보이는 생물체의 사진을 찍었다는 남자의 코멘트, 여기에 UFO 연구자의 코멘트가 뒤따른다.

이 일면에 게재된 UFO 목격담은 물론 정확한 사실정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큰 제목에도 있듯이, 이 기사는 독자들에게 대한 서비스, <즐거움>인 것이다. 권위 있는 미디어라면 문젯거리로 삼을 가치도 없는, 이런 기사를 일면에 다루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UFO나 설인, 네스 호의 괴물

등 미확인생물체의 목격담 등은 오히려 타블로이드지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이며, 한편 이 주제들은 과거의 전설집, 또는 세간 이야기집 등에서 익숙한 것들이기도 하다. 우선 이러한 기사들로부터 타블로이드지가 포클로어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기사가 사실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라, 대중지 속에 정치, 경제 혹은 유명인의 스캔들 기사, 가십과 함께, 같은 지면 속에 등가의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계의 다른 레벨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독자의 호기심에 맞춰 대량으로 더욱이 균질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일간지의 경우, 통상 하루라는 단위로 사건이 수집되고 지면이 채워진다. 그리고 이 사건 보도의 다수는 드물게 속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두 번 다시 지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없다. 거기서 독자는 모자이크 상으로 모인 하루 단위의 새로운 기사를 알게 되고, 일단 기억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형태로 재생되거나, 많은 경우 대개의 사건은 잊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어수선했음, 사건의 무질서한 집적의 양상이 이제까지 옛날이야기, 전설 등의 전통적인 장르에서 흘러나오는 <일상의 이야기>, <세간의 이야기>의 영역과 크게 겹쳐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블로이드지로 상징되는, 호기심, 오락성, 무질서라는 사건의 제시 양상이 현대의 포클로어의 존재 양식을 생각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 매스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와, 예전 민속학이 대상으로 하던 비교적 폐쇄된 농촌 공동체적 사회의 정보의 수용, 전달의 과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물론 유의해야 한다. 즉, 현대 미디어의 다양성, 압도적 정보량, 나아가 그 질적 차이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의 존재방식마저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 생활권의 바깥을 이는 수단, 또는 오락으로서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오늘날 물리적인 장벽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고도의 정보화 사회는 바다 바깥의 사건이라 해도, 또한 자기 일상과 어떤 관계가 없는 사건도, 매우 친근하게 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렇듯 장소로 모르는 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일회일비하는 것이 현재는 극히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매스미디어로 전해지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에서도 결코 상상을 초월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사실로서 충분이 있을 수 있는 기사이문(奇事異聞)인 것이다. 더욱이 하루 단위로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사건의 정보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음미되고, 소화되고, 전달·전송되어 문화재로서의 포클로어가 되어 가는 것은 극히 드물며, 대량의 정보는 많은 경우 매일 매일의 오락, 애깃거리로서 소비되는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띠어간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 간의 전승이 결여되어 있는 현대의 포클로어<현대전설>, <세간 이야기> 그것을 포괄하는 <일상의 이야기>와⁵ 타블로이드지의 기사는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타블로이드지의 기사와 현대의 포클로어를 그 내용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2. 「기사이문」과 말투

우선, 앞에 인용한 『빌트』지의 다른 페이지, 제 8면의 단신란을 보도록 하자.

① 「여왕은 파지를 초대(런던)」

(런던) 원저성에서의 화해? 여왕은 파지(33세), 요크 공작부인을 여름휴가 때 발모럴 성에 초대했다.

② 「거미에 물려, 팔, 다리를 잃다」

(산 베르나디오) 독거미에 물려, 캘리포니아의 주부 발 스텝프(39세)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5개월 후 그녀는 깨어났지만, 팔과 다리를 잃었다. 폐혈증 때문에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③ 「유전 발견」

(모스크바) 시베리아의 아바칸 시에서 지하 유전이 발견되었다. 이 유전은 25000톤의 원유를 매장하고 있다.

④ 「20미터 아래 추락해서 구조되다」

(스톡홀름) 20미터 이상의 고지에서 추락한 스웨덴 남성이 중태이긴 하지만 목숨은 건졌다. 그 남성은 바위산 위에서 지갑을 찾다가 추락했다.

⑤ 「불꽃 솟아오르다」

(네아펠) 네아펠의 불꽃놀이 제조공장의 폭발로 2명의 직원이 사망. 수백 명이 마피아의 테러로 생각한 나머지 패닉상태.

이들 기사는 가로 2단(전체 가로 7단) 5분의 1의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여백 메우기 기사이다(즉, 이 페이지의 메인 기사는 일본의 황실 마사코 왕비의 결혼). 또한 기사 자체는 매우 간결하고, 사건을 최소한의 자수로 보도하고 있다. 어떤 기사도 해외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이름 등 정보의 출처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매체, 혹은 이 난의 본질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지만, 앞에도 서술했듯이, 여기에서도 기사는 정보의 확실함이 추구되지 않고, 더욱이 세밀한 취재로 뒷받침되는 자세한 사건 기술이 있을 리가 없다. 사건 그 자체의 임팩트만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불과 몇 줄의 기사 구성을 주의 깊게 보면, 어떤 이야기로서의 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②, ④, ⑤의 기사에서는 우선 사건의 결과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그 결과가 기재되는 순서를 취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일종의 보도 스타일이다. 하지만 ④의 경우 비참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이 지갑을 주우려고 했던 사소한 행위가 발단이었다는 대목, 또 ⑤의 사례의 경우 폭발사고가 패닉을 일으킨 원인이 마피아의 테러라고 착각했다는 대목에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웃음의 요소를 덧붙이는 효과가 있다. 적어도 단순한 폭발사고로 죽은 자가 나왔다는 것 이상으로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구승 문예학적 장르 연구의 고전인 『단순형식(Einfache Formen)』(일본어 역, 『메르헨의 기원』 高橋由美子 역) 가운데 요레스(Jolles, Andres)는 이러한 말하기의 형식으로서 <회상기Memorable>⁶을 들고 있다.

요레스는 이 장르를 설명하면서 한 신문 기사를 예로 들고 있다.

상업 고문관인 S의 자살

상업고문관인 하인리히 S가 어젯밤 카이저 거리 203번지의 자택에서 권총 자살을 했는데, 그 동기는 재정적인 곤경 때문이었다고 한다. 터키 출신의 S는 이전부터 보드카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꽤 오래 전에 처분했다. 62세의 그는 이미 꽤 이전부터 자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는데, 부인이 음악회에 갔던 어젯밤 그 계획을 실행했다. 총성을 들은 것은 동네 주민인 아스터 닐슨으로, 그녀가 최초로 의사와 경찰에 신고했다.⁷

요레스는 이 신문기사에서 통상의 보고라는 의미에서는 생략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자살은 부인이 음악회에 갔을 때 일어났다. 이 사건에 최저의 필요한 보고에서는 「아내가 외출 중에 남편은 자살했다」고 말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부인이 음악회라는 오락, 혹은 예술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나갔다는 사실이 삽입되는 것에 의해 남편의 고독한 자살이라는 사실이 한층 선명하게 부각된다. 즉, 이 신문기사의 목적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전체로서 만들어내기 위한 무엇인가」를 부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이 구성되고,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형식이 성립한다. 이것을 요레스는 ‘회상기’라고 말한다.⁸

앞서 다룬 『빌트』 지의 기사는 요레스의 ‘회상기’ 사례와 같은 복잡한 구성을 갖지는 않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사건에 뒤따르는 사실이 선별되어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체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을 <말하는> 형식의 존재방식, 특히 신문을 위시한 기술의 스타일이 포클로어의 말투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가 사건을 말하고자 할 때의 스타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3. 신문전설의 유형론(typology)

독일어권에서는 1930년대부터 전설과 공통된 모티프를 갖는 신문기사에 대해 <신문전설(Zeitungsag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또한 신문 이전의 매스미디어인 1매 인쇄의 기와판(Flugblätter)에도 종종 전설적인 기사이문이 게재되고 사건보도의 역사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⁹ 하지만 많은 설화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러한 매스미디어 속의 포클로어의 형식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향해 있었다. 그때 포클로어는 어디까지나 구승에서 시작된 설화의 종착점이자, 미디어는 그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즉, 신문은 포클로어를 파악하는 필드라는 장을 보완하는 2차적 자료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알프레드 카라섹=랑저(Alfred Karasek=Langer)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금주(禁酒) 단체가 편집하는 잡지 『상승(Aufwärts)』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신문기사로 인용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모라비아의 「사체안치소의 천벌」

슬로바키아의 한 마을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술집에서 잔뜩 술을 마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대담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결국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기를 걸게 되었다.

어떤 농가출신의 젊은이가 어두운 밤중에, 묘지에 있는 사체안치소에 가자고 말을 꺼냈다. 거기는 몇 시간 전에 자살자의 사체가 안치된 곳이었다. 그 사체 안치소에 진짜로 들어간 증거로 포켓나이프를 관에 꽂아두고 오자고 그 젊은이는 말했다.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를 묘지의 사체안치소의 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까지 데리고 간 후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젊은이들은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체안치소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그의 나이프는 실제로 자살자의 관에 꽂혀 있었다. 그의 죽음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가 나이프를 관에 꽂았을 때, 그의 긴 망토의 옷자락도 함께 찢려버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나가려고 했을 때, 그의 망토가 관에 딱 찢려 있었기 때문에 관이 함께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그의 사체는 무거운 관 밑에 깔려 있었다.¹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전설의 유형 <묘지의 복수>에 속한 것이다. 마을의 젊은이가 묘표의 십자가에 나이프를 꽂았을 때, 자신의 망토 자락도 함께 꽂아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죽은 자가 자신을 붙잡았다고 착각해서 충격에 빠진 나머지 죽어버린다는 이야기다.

카라젝-랑거는 알콜 중독에 의해 발생한 사고·범죄란에 게재된 이 이야기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나 진지한 잡지에서 ‘정말로 있었던’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의도는 독자에게 음주가 초래한 비극으로, 이 전설과 같은 사건을 전하는 것이며, 편집자는 물론 독자들도 이 사건은 우화적이지만 사실의 범위에 들어가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여기서 카라젝-랑거는 어디까지나 이 기사는 구승문예가 어떤 형태로든 매스미디어 속에 편입해 들어가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발터 앤더슨(Anderson Walter)도 신문 속에 민간설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웃긴 이야기가 신문에 게재되고 있다.

한밤중의 유령

아치볼트 공이 클럽에서 그의 친구인 윌리엄에게 브라운베어 공과 함께 체험했던, 엉뚱한 모험담을 말해주었다. 브라운베어 공은 아치볼트를 그의 성에 있는 유령의 방에 안내했다. ‘한밤중이 되면 사람을 죽인 소년이 들어와.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작은 남자아이지. 너라면 괜찮겠지, 아치볼트’

아치볼트 공은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침대 아래쪽에서 누군가를 활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불을 밀어젖히고 보자,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10개의 더러운 작은 손가락이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권총을 들고, 그 10개의 손가락을 겨냥하면서 외쳤다. ‘움직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쏜다’ 그것은 바로 멈췄다. 하지만 다시, 와삭와삭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은 말했다 ‘바로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쏜다’ 응답은 없었다. 공은 방아쇠를 당겼다. 그 이후 공은 두터운 붕대를 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발가락을 쏘기 때문이다.¹¹

앤더슨은 이 기사를 위시해 사례로서 제시한 기사들을 아르네 톱슨의 모티프 인덱스에 집어넣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신문에 들어간 민간설화에는 메르헨은 적고 전설이나 특히 웃긴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한다.¹² 메르헨과 같은 가공의 이야기가 신문에는 많지 않다는 그의 지적은 본래 신문이 사실을 전달한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앤더슨도 신문에 게재된 이들 사건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구승문예가 채록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포클로어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도 신문이라는 매스미디어의 본래 특질과 전승적 사건의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 천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루돌프 쉐나(Schenda, Rudolf)는 구승으로부터 미디어로라는 흐름과는 반대로 미디어로부터 구승으로라는 흐름이, 광범위한 서민들의 이야기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의 문화사라는 측면에서 규명하고 있다.

쉐나는 문자문화는 18세기부터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교양층만이 아니라, 낭독이라는 형태로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신문을 위시해 민중용 책, 달력, 교과서 등의 활자 미디어가 <이야기>에 풍부히 들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이 프로세스를 쉐나는 세미 리터릿(Semi-literate)(半 식자화) 과정이라고 명명하

고 있다.¹³ 어찌됐건 미디어가 <이야기>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미디어와 이야기 세계의 교통이 현대에는 보다 밀접해지고 있다. 독일어권에서는 베버=켈러먼(Weber-Kellermann Ingeborg)에 의한 도시권에서의 전설 형성 연구,¹⁴ 또는 헤르만 바우징거(Bausinger, Hermann)에 의한 <일상의 이야기(Alltagliches Erzählen)> 개념의 제창을 계기¹⁵로 해서, 또는 영어권에서의 도시 전설연구에도 촉발되어, 소위 대도시권에서 유포하는 <현대전설>이 각광을 받게 되고, 프리드리히의 전설모음집을 위시해 <현대전설>의 수집, 분류정리가 80년대부터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들 연구의 성과로서 부상된 것이 이야기되어온 많은 전설적 이야기가 매스미디어 속에 놀라울 정도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의 앤솔로지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클린트베리(at Klintberg Bengt) 등의 전설 모음집을 보면¹⁶ 예화로서 제시된 이야기의 주석에 이들 이야기가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의 매스미디어에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또한 통상 ‘친구의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도 그 전승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매스미디어로 귀결되는 경우도 종종 지적되고 있다.¹⁷ 즉, 이 포클로어와 매스미디어의 보도라는 흐름은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가 아니라, 서로 피드백의 관계라는 점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원래 현대의 일상생활이 매스미디어 없이는 생각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이야기도 매스미디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4. 포클로어와 변형(variants)

헝가리 출신의 민속학자 린다 데그(Dégh Linda)는 유럽 전통사회의 포클로어에서 현대 미국의 포클로어까지 두루 살피면서 오늘날의 구승문예와 매스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최근 저서 *American Folklore and the Mass Media* 속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논하고 있다.

우선 데크는 쉐다에 의거해서 민속학자가 대상으로 하는 민중=포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중이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함과 동시에 소비자 지향의 문화산업에 영향을 받는, 사회, 경제, 직업, 연령집단이다.”¹⁸ 그리고 포클로어를 “문자에 의한 창조성과 구두적 창조성, 프로페셔널한 창조성과 평범한 창조성, 공적인 창조성과 비공식적 창조성, 연습된 창조성과 즉흥적 창조성의 상호관계를 고착시킨, 현재 실로 진행 중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¹⁹라고 정의한다.

이 정식에서 특히 주의하고 싶은 것은 자립적이며 닫힌 마이크로 코스모스로서의 전 산업사회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무구한 포클로어라는 환상이 예전 그러했던 것 이상으로 오늘날에는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쉐다가 말하듯이 아이러니하게도 “현대만큼 포클로어가 융성”하고 있는 시대는 없다는 의미는 현대 미디어 속에 포클로어 자체, 혹은 그 모든 모티프나 유형이 혼연일체로 융해되어 있다는 것이며, 매스미디어와 포클로어를 확실히 구별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크는 미디어에 나타난 포클로어적인 것을 <변형(variants)>이라는 개념으로 건져 올리고자 한다. 데크는 본래 포클로어에는 원형이 있으며, 거기서 변형이 발생한다는 예전 민속학에서 지배적이었던 사고방식이 이젠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래 포클로어 자체를 모두 변형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보면 구승, 문학, 영상, 음성 등 미디어의 성질에 관계없이 모두 변형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데크는 “민간설화 나아가 포클로어 일반의 정의로서 <구승(oral)>이라는 수사어구는 포클로어의 전승에 다양한 매스미디어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가변적(variable)>이라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⁰

5. 〈사실〉 아니면 〈픽션〉?

헤르케 게른트(Gerndt Helge)는 매스미디어와 민속학자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일상의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가운데, 타블로이드지나 일반지 속의 소위 <잡스러운 정보(Vermischtes)>에 주목한다.²¹ 오늘날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정보원으로서의 주역을 텔레비전 등에 계속 넘겨주고 있지만, 세상의 새로운 사건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소재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매일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는 <뉴스>라는 형태의 정보는 우리들이 외부세계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재료임과 동시에 일상회화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거기서 게른트는 신문에 나타난 <민중문화(Populare Kultur)>를 “일상의 표현형식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의 총칭이라고 우선 이해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일상을 신문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자료에서 어느 정도 민속학적 분석을 구축할 수 있는가”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다.²²

게른트가 주목하는 것은 신문의 <잡스러운 정보>에 나타난 뉴스와 전설 —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브레드니히가 이야기한 전설적 이야기 — 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그림이 정의한 이래, <전설>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는 그 이야기가 사실로서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설, 혹은 전설적 이야기는 확고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실과 픽션 사이의 양가적인 균형 위에 이야기되어왔다. 본래의 전설이 역사성에 비중이 두어진 설화라는 것을 빼다보면, 전설도 현대 미디어의 뉴스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실성에서 양가적인 존재이며, 또한 양자 모두 사실보고의 체재를 취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약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사실 혹은 믿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에 불과하다.²³

예를 들어 게른트가 제시한 다음 두 사례에 차이가 있을까?

로프웨이에 버려진 부부

북경(AFP) 만리장성 로프웨이에 홍콩에서 온 부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북경 데일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프웨이의 스위치가 꺼졌을 때, 그 부부는 캐빈 속에 남겨졌다. 직원이 승객 수의 기록을 확인한 후 모든 승객이 하차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자, 남편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캐빈의 창을 깨부수고자 했다. 그때 남성은 캐빈에서 추락. 신문 정보에 따르면 남성은 즉사. 여성은 로프를 타고 내리려다 추락, 중상을 입었다.²⁴

(『퀴드 도이체 차이퉁』(남독일신문) 1991년, Nr. 177)

리프트에 버려진

다음 이야기는 휴가차 유고슬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티롤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들었다. 쿠프슈타인과 인스브루크 사이에 있는 쿠람자하에서는 로프웨이가 존넨벤트요 호까지 운행된다. 어느 여름날 저녁, 한 여성이 산 위에서 저녁놀을 보면서 산보하고 싶어서 리프트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상행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그녀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녀 이외에는 단 한 명도 좌석에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깊은 계곡에 다다른 바로 그때, 돌연 로프웨이가 멎었다. 내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고, 구조요청을 들어줄 사람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다. 그녀는 하룻밤 내내 혼자 리프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극도의 냉기로, 병원에 실려갔다.²⁵

(Das Huhn mit dem Gipsbein, Nr.105)

거기서 케른트는 “전설적 이야기는 보고, 뉴스이다. (중략) 만약 전설로부터 역사적 (낭만적인) 뉘 앙스를 제외하면 뉴스가 되고, 또 반대로 (모든) 뉴스는 전설적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사실을 전하기 위해 항상 어떤 종류의 선별 혹은 강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⁶ 이는 앞서 요레스가 ‘회상기’에서 지적한 보도의 특질과도 통한다.

이렇게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보도와 포클로어의 경계는 점차 애매해지고 있고,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곤란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때 동일한 내용이 담긴 말투에 의해 실제로 <말해졌다>는 것은 주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이 사건의 정보는 <이야기한다>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을 통해 일시적이긴 하지만 <신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단순한 수용을 초월한 능동적 문화 행위의 맥이 있는 것이다.

6. 사건학(デキゴトロジー)의 민속학으로

매스미디어로부터 일상의 이야기로, 또 일상의 이야기로부터 매스미디어로, 이러한 끊임없는 환류 속에서도 현재 특수한 하나의 환류가 커다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신문, 잡지 등의 활자 미디어를 위시해, 텔레비전, 라디오, 나아가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속에 <투고>라는 행위가 커다란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사례는 일본의 대표적 타블로이드지인 『일간 겐다이』의 「기업 뒷정보-코끼리 귀 통신」이라는 제목의 투고 코너이다.

근처에서 컴퓨터를 지도하는 수수께끼의 인물

[컴퓨터 =H·W특파원]

시부야 구에 있는 우리 회사는 이전에 사형장이라던가, 식육해체장이라던가, 어찌됐건 그다지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장소. 입사 이래, 흥미롭고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신입사원 몇 명이 연수 당시 수수께끼의 인물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40세 전후의 성품이 좋은 남성이었는데, 5분 정도 지도한 후 떠났다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렇다면 잔업하고 있을 때, 같은 품모의 사람이 복도를 걷고 있었다던가, 식사 도중에 좌석을 비우고 돌아오면 일이 진행되어 있다던가, ‘여기 틀렸어요’라고 가리키는 사람을 보면, 그 남성이었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속출했다. 최근에는 그를 우리 회사의 ‘좌석동자(座敷わらし)(역주: 주로 이와테 현에서 전승되는 정령적 존재. 다다미방 혹은 창고에 거주하는 정령으로 이야기되며, 집안사람에게 장난을 치거나, 본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오고, 집에 부를 가져온다는 전승이 있음)라며 존경하는 분위기도 있다.

(『일간 겐다이』 96년6월6일)

이 코너는 특파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리포터가 회사의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기사가 독자의 투고를 그대로 게재한 것이 아니라, 편집된 것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투고란이 지금은 거의 모든 활자매체에서 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사건학(デキゴトロジー)>이라는 이름으로 호평을 얻은 『주간 아사히』의 연재가 우선 떠오른다. 독자들 주위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을 흥미롭고 이상하게 보고하는 형태의 연재는 현재 다양한 잡지나 신문에서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시청자 참가 프로그램 등에서도 잘 보이는 수법이다. 이러한,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의 신변잡화를 매스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는 흐름에 의해, 지금은 누구라도 불특

정 다수의 청취자, 독자에 대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하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더욱이 인터넷의 등장에 의해 이러한 이야기하기 루트에 섞여 들어가기는 한층 용이해졌다. 그 결과 실제 체험이나 또는 남으로부터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눈물나는 이야기 등, 모든 일반적 이야기가 좁은 친구들 사이의 공간에서 대중의 공간으로 증식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서 이들 이야기라는 것은 미디어에 의한 가공, 정형화의 프로세스에 의해 정형화되어 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민속학자가 받아적기나 양케이트 형태로 수집하고 있는 한편, 압도적인 분량의 이야기가 매일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중의 일종의 문화적 소비재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말하기>의 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이 엄청난 매스미디어의 산물들을, 자료화해서 실제의 이야기와 대조해가는 것이 민속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 <이야기>의 과잉이라는 문화적 상황, 또 <사건학>이라는 말로 집약되는, 일반 사람들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고 하는 움직임에 관해, 민속학으로부터 발언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注

- 1 예를 들어 스위스의 민속학자 리차드 바이스(Richard Weiss)는 소위 도시전설은 모티프에서는 전설과 공통점을 갖지만 그 형식, 전승양식에서 보면 <소문>으로 분류해야 하며, 일회성이며, 더욱이 대중성이 강하고, 전통적 관념과의 결합이 없는, 이들 소문은 민속학의 재료가 아니라고 말했다(Weiss, *R. Volkskunde der Schweiz*, 1946, [Ehrenbach-Zürich], S.293.
- 2 加藤雅彦他編 『事典 現代のドイツ』(大修館書店) 1998. S.485.
- 3 Lehman, Albrecht, *Das Leben in einem Arbeiter-dorf*, 1976 [Stuttgart] S. 132)
- 4 2)와 동일. S. 485
- 5 Degh, Linda, *American Folklore and the Mass Media*, 1995 [Indianapolis/ Bloomington] S.23 등 참조.
- 6 안드레 요레스(Jolles, Andre), 『메르헨의 기원』(다카하시 유미코 역) 고단샤학술문고, 1999 S.294-318.
- 7 ebenda., S.294
- 8 ebenda., S.297-306
- 9 Schenda, Rudolf, *Von Mund zu Ohr* [Göttingen] 1993, S.217
- 10 Karasek=Langer, Alfred, Eine, Zeitungssage vom "Leichenkammer=Frevel" aus Mähren. In: Sudetendeutsche Zeitschrift für Volkskunde 9, 1936, S.14
- 11 "Kieler Nachrichten, 12. August, 1953" In : Anderson, Walter, Volkserzählung in Tageszeitungen. In: Rheinisches Jahrbuch für Volkskunde 10, 1959, S.168f
- 12 ebenda., S.163
- 13 Schenda, a.a.o., S.232
- 14 Weber- Kellermann, Ingeborg, Berliner Sagenbildung 1952, In : Zeitschrift für Volkskunde 52, 1956, S. 162-170
- 15 Bausinger, He1rmann, Strukturen des alltäglichen Erzählens. In : Fabula 1, S. 239-254
- 16 Brednich, R. W., *Die Spinne in der Yucca-Palme* [München] 1990, *Die Maus im Jumb-Jet* [München] 1991, *Das Huhn mit dem Gipsbein* [München] 1996, *Klintberg, af Bengt, Der Elefant auf dem VW* [München/Zürich] 1992 등.
- 17 Lauf, Edmund, *Gerichte und Klatsch*, [Berlin] 1990 등. 이 모노그래프에서는 전형적인 현대전설인 「꿰어진 손가락」을 매스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에 의한 전승, 파급의 프로세스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 18 Degh, Linda, *American Folklore and the Mass Media*, 1994 [Indianapolis/ Bloomington] S.I
- 19 ebenda., S.I
- 20 ebenda., S.38
- 21 Gerndt, Herge, Vermischtes. Zeitungsnachricht als Sage. In : Lipp, C. (Hg.) *Medien populärer Kultur*, [Frankfurt/N.Y.] 1990, S.48-59
- 22 ebenda., S.48f
- 23 ebenda., S.53
- 24 ebenda., S.50
- 25 Brednich, R.W., *Das Huhn, mit dem Gipsbein*. München [1993] S.142
- 26 Gerndt, a.a.o., S.57